

# 『요한복음』

## 1.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Ιωάννης)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였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변화산 사건과 겿세마네 동산, 십자가 현장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었으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말년에는 에베소에서 사역하였다.

요한복음은 이 사도의 신앙적 증언이자, 오랜 묵상과 체험이 응축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 2. 기록 연대와 배경

요한복음은 A.D. 80-90년경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태·마가·누가복음보다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로, 이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승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후의 복음서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요한복음이 사건의 단순한 재서술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요한은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기보다, 그 사건 속에 담긴 영적 깊이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

## 3.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20:31)

요한복음은 역사 기록을 넘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증언의 책이다.

이 복음서는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중심 개념은 “믿음”과 “생명”이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적 사건이다.

## 4. 중심 주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복음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그분의 존재를 선포하는 구절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신 ‘말씀’(λόγος)으로 증언한다.

요한복음은 연대기적 전개보다는 존재론적 선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

## 5. 공간복음과의 구별

마태·마가·누가복음은 흔히 “공간복음”이라 불린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술하며, 갈릴리 사역과 제자도의 실천을 강조한다.

반면 요한복음은 사건의 외적 전개보다 그 내적 의미에 초점을 둔다.

공간복음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주목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낸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실천이 두드러진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과 생명, 빛과 진리, 사랑과 연합의 주제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라 할 수 있다.

## 6. 표적의 의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σημείον)이라 부른다.

이는 사건 그 자체의 놀라움보다, 그 사건이 가리키는 계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맹인의 치유, 나사로의 부활 등은 모두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빛이시고 부활임을 드러내는 신학적 선언으로 기능한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메시지를 담은 사건이며, 그 목적은 언제나 믿음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 7. 요한복음의 신학적 성격

요한복음은 깊은 내적 영성과 교리적 구조를 지닌 복음서이다.

성육신, 영생, 성령의 사역, 하나님과의 연합 등 신학의 핵심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복음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독자를 말씀 앞에 세우며,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도록 초청한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권의 복음서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에 참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 분류한다면, 요한복음의 내적인 영성을 통하여(조직신학), 공간복음의 외적인 행위로(실천신학)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록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